

사도행전 1:3-11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성령 / 비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리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구원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달되는 것(8절)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처럼 성령으로 폭 잡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 끝까지 있는 주의 택한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비전대로 살다가 가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헛된 비전을 가지지 말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지금까지 흘러흘러 왔습니다. 100여년 전 하나님이 없는 조선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젊음을 던진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갈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무런 소망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통째로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니 너 또한 그리 살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빠짐없이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에 정말 관심이 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자신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가신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위하여 각자에게 각기 다른 특별한 경험과 시간과 마음과 환경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비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하고 영원하며 고귀한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9:1-9

일방적인 구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 사울을 만나러 가시던 예수님

일방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 어쩌면 우리에게 일방적인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른채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지만 지치는 줄도 모르고 있지 않나요? 죄인들이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일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진리의 길은 나 뿐이다. 내가 길이며, 내가 생명이다. 세상이말고 나를 선택해라.’ 이러한 제안에 압도당한 청년,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일방적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고 율법에 능통하여 그 어떤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진리를 흔들고 백성을 미혹케 한 자로서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랬기에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은 217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왕복하면 434km 인데 사울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 그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사울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아무도 존경하지 않은 것은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울의 앞에 ‘먼저’ 나타나셔서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기 시작하더니 곧 들리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가 앞에 나타났을 때 사울은 땅에 엎어져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밖에 할 수 없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넣기 위해 온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빛에 시각을 잃어 일행의 손에 이끌려 겨우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음을 전폐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니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목자가 필요하다,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너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인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1-11

새 시대 바른 기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무리들 / 말씀으로 기준을 깨드리는 삶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전통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한 무리들은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율법의 준수가 구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시고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단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 대한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파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것인줄도 모르고 그동안 경험했고 알고 있던 전통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름 모를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방인들이 전도하여 이미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를 본 이야기 등을 이야기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그룹 간의 적지않은 충돌과 논쟁은 결국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에 대한 회의를 열고자 했습니다. 그 회의가 바로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준이 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 환상을 통해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권유에 부정한 것이기에 먹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10:15)' 는 말씀을 듣고 난 뒤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회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깨끗하지 않다고 했던 환상이 떠오르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줄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며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방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자신의 기준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자신의 기준만을 고집하며 내 주장이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름수록 함께 말씀을 찾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 살피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훌륭한 의견을 제시하여 공동체를 하나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해 말씀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소통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17-35

부끄럽지 않은 삶

바울의 사명 / 불편한 사명자의 삶

‘나라고 알았겠나, 해방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영화 ‘암살’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자 기회를 틈타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전재산과 목숨을 바쳐가며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삶이 부끄러운 삶이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는지 판가름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인사이트를 주는 날입니다.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 남을 짓밟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나라고 알았겠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줄 몰랐지.’라며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메세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인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장로라고 말하는 자들은 에베소교회와 그 지역을 이끌고 갈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좋은 시간과 핍박과 공격의 아픈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공격을 참아가며 주를 섬겼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이란 죄에 대한 회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주를 섬기며 열심히 복음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줬습니다.

그는 24절을 통해 자신의 삶은 주님을 위해만 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참아낼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신에 대하여 빛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인식은 26-27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합니다. 왜 깨끗한가?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고 근거를 듭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텐데 먼저 믿은 자로서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절대 편해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늘 겸손을 유지해야 했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으며 억울한 공격으로부터 인내해야 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불편을 감수하고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불편한 삶을 포기한다면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친일파를 어떻게 평

가합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팔아먹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라고 평가하지 않나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 가정, 삶, 목숨까지 내어놓은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이 고귀하고 숭고한,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독립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현실과 타협한 사람은 부끄러운 삶이 되었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던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아주 만약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피땀과 생명이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쩌면 올 날이 아니라 반드시 오고야 마는 날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날이 있는데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아 내 주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로, 인내로 섬기며 꾸준히 예수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끔 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오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8:23-31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순종한다

로마에서 / 거침없이

‘기후 우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후우울이라는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심리학회에서는 2017년 보고서에서 ‘환경 파괴에 대한 만성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기후불안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더 비참한 일, 기후우울증. 그런데 우리에게 기후우울증만 있겠습니까? 입시우울증, 취준생우울증, 직장인우울증, 퇴사우울증, 연애우울증, 결혼우울증,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블루가 있기 전부터 이미 온 세상은 블루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배경은 어떤가요? 블루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뭔가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뀔 것 같았을지 모르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죽도록 헌신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자꾸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까지 우울함이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차고 박력있으며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행9:16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각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겨나거나 매를 맞는 등 여러 수모를 당합니다. 전도여행의 엄청난 거리를 걸어야 했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지내야 했으며, 죄 없이 동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로마에 오면서도 배가 태풍에 파선되어 죽을 뻔 했습니다. 이뿐만이었겠습니까? 과연 이 길이 맞을까? 하는 불안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드는 절망감, 자신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줄 친구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 등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그는 가택연금을 당한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그러

한 삶은 가택연금 기간이었던 2년 동안 이어졌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거침 없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이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은 본 의미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모든 환경이 잘 따라주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전파의 삶은 온통 장애물 투성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의 사명이 그가 처한 환경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불안정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분명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하 가실 때 그의 신비로운 섭리가 모든 악한 것들이 선하게 사용되게끔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유대사회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 베스도의 정치적인 이익추구와 뇌물을 받고자 바울을 풀어주지 않음으로 인해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의 신분으로는 총독들과 황제 앞에 설 수 없는데 억울하게 소송에 당하고 상소하는 과정을 통하여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서 자신의 파를 늘리려고 했지만 결국 전파된 것은 복음이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